

사료곡물가격 금년 4/4분기~

내년 상반기 상승세

.....
곡물생산 75/76 이후 최저수준,
식량수급 악화로 무기화조짐 보이고
있어
.....

최근 세계의 주요 곡창지대를 휩쓸고 있는 한발과 열파·호우 등 이상 기상으로 세계 식량수급 사정이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소련곡물禁輸 조치가 장기화 되는 등 식량무기화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어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식량수급 악화로 세계의 주요곡물 시장에서는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가격이 73~7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이미 급등했다.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 곡물수급과 국제 곡물시장의 동향에 대응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9월 18일 국제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0/81년도 (80. 7~81. 6)의 세계 곡물전망에 따르면 이 기간중 곡물총생산량은 14억3천만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3천1백만t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80/81년도의 총소비 예측량 14억4천2백만t에 비해 1천2백만t이

부족하며 따라서 80/81년도 말의 세계곡물 재고는 79/80년도 말에 비해 1천 2백만t이 감소한 1억8천8백만t으로 예측되며 소비에 대한 기말 재고비율은 79/80년도의13.9%에서 13%로 낮아져 75/76년도 이후 5년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79/80년도 세계 곡물생산량은 소련 동구권등의 흉작으로 78/79년도에 비해 4%나 감소한 13억9천9백만t을 기록, 총소비량 14억2천8백만t 보다 2천9백만t이 부족했으나 세계 최대의 곡물수출국인 미국이 사상 최고의 대풍작을 기록했고 세계의 곡물 재고가 비교적 충분했기 때문에 수급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년초 미국 정부의 對蘇 곡물금수 조치로 일시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빚기도 했었다.

국제경제연구원이 밝힌 세계곡물수급 현황 및 80/81년도 수급 예측치는 다음과 같다.

.....
소련 80/81년 2천 800만t 수입예측
되고 중공은 1천 400만t으로
전년대비 33% 증가
.....

주요수입국의 곡물수입현황 및 정책을 국

세 계 곡 물 수 급 현 황

(단위 : 백만톤)

곡물년도	기 초 재 고	생 산	소 비 (A)	기말재고 (B)	B/A (%)	교 역
67 / 68	167.4	1,036.2	1,014.5	187.8	18.5	96.8
68 / 69	187.8	1,069.6	1,037.5	219.5	21.2	89.1
69 / 70	219.5	1,083.3	1,095.4	205.6	18.8	96.8
70 / 71	205.6	1,095.3	1,138.1	165.7	14.6	109.1
71 / 72	165.7	1,186.2	1,166.4	183.4	15.7	109.1
72 / 73	183.4	1,151.6	1,191.2	142.2	11.9	133.8
73 / 74	142.3	1,256.4	1,250.5	146.9	11.7	141.9
74 / 75	146.9	1,205.1	1,216.8	130.6	10.7	135.3
75 / 76	130.6	1,245.8	1,238.0	138.5	11.2	152.5
76 / 77	138.5	1,354.9	1,297.8	194.7	15.0	156.0
77 / 78	194.7	1,336.7	1,339.6	191.8	14.3	166.0
78 / 79	191.8	1,455.3	1,419.4	227.7	16.0	172.8
* 79 / 80	227.7	1,399.3	1,428.0	199.0	13.9	197.0
** 80 / 81	199.0	1,430.0	1,442.0	188.0	13.0	198.0

註 : 1) 소맥, 조곡, 정미 (milled rice) 포함

* 잠정치 ** 예측

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소련=세계 최대 곡물 소비국인 소련은 지난해 흉작으로 인하여 79/80년도(79. 7 ~ 80. 6) 중 3,100만톤의 곡물을 수입하였음. 이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총 수입량의 49%를 차지하여 78/79년도의 74%보다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년초 미 정부의 대소곡물 급수조치에 기인하였음. 소련은 76년10월 미 소장기곡물협정(1976. 10~1981. 9)을 체결하여 필요한 곡물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년초 미국의 대소곡물급수조치 이후 캐나다·호주·아르헨티나 등 주요 곡물수출국들과 곡물협정을 맺어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을 증대시키고 있음. 80/81년도 중 소련이 수입할 곡물량은 2,800 만톤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들 1,500만톤 가량은 국가간의 공급계약에 의해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대소곡물급수 조치가 계속 될 경우 소련은 곡물수입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나 미국내 농민들의 압력으로 미국의 회에서 대소곡물급수조치 해제의 거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공화당大統領 후보인 리건도 대소곡물급수조치를 철폐해야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 대소곡물수출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음.

△ 중공=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공은 급격히 늘어나는 곡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77년부터 해외로부터의 수입량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어 국제곡물시장에서 주요 수입국으로 등장하였음.

중공은 79년 1월에 캐나다와 840~1,050만톤의 소맥을 79~81년에 수입하기로 계약한 것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호주등과도 곡물협정을 맺고 있어 이 협정에 따라 연간 750만톤의 곡물을 수입할 수 있음.

그러나 최대 수입대상국인 미국과의 국가

간 곡물협정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곡물수입량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결되지 않고 있어 80년 들어서는 미국과 정부간 곡물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활발한 교섭을 하고 있음. 중공의 80년도 곡물수입량은 1,400만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79년에 비해 33%, 77년에 비해서는 105% 증가한 수준으로 이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 국제곡물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임.

△ 일본=주곡인 쌀은 자급하고 남아 매년 수출하고 있으나 소맥·조곡·대두등은 거의 전량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곡물 수입량은 소련과 세계 제 1,2위를 다투고 있음. 일본은 현재 호주 및 캐나다와 곡물협정을 맺어 소맥과 대맥을 수입하고 있으며 식량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평균량을 수입하고 있음. 일본의 80/81년도 곡물수입량은 2,440만톤으로 예측되는데 단일국가로는 소련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수준임.

한편 미국의 곡물금수조치에 자극받아 일본정부는 식량안보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기관인 농정심의회에서 9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농산물 수급장기전망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이 보고서는 식량이 외교적인 전략물자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의의 사태에 대비한 식량확보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3단계 대책을 제시하였음.

첫째, 단기적으로는 비축을 늘려 정부뿐만 아니라 생산자 단체도 스스로 식량을 비축하고.

둘째, 중기적으로는 생산국과의 장기수입계약을 체결하여 물량을 확보하며.

셋째, 장기적으로는 농지확보등으로 잠재생산력을 개발함.

또한 현재의 농업생산구조를 재편하여 남

아도는 쌀의 경작지 면적을 줄이고 이 면적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맥·대두등을 확대 재배할 것을 건의 하였음.

한편 최대 곡물수출국인 미국의 80/81년도 옥수수 및 대두생산은 전년비 15.9%, 19.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나 80/81년도 수출은 옥수수가 전년비 4.2% 증가하고 대두는 1.7% 감소에 그칠것으로 전망됨. 이는 79/80년도 중 미국의 옥수수 및 대두생산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대소금수 조치로 국내 재고가 충분한 상태에 있기 때문임. 한편 80/81년도중 전년비 8.5% 증산될 것으로 보이는 소맥은 동연도중 수출량이 5.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미국곡물생산량 및 수출량전망

단위 : 백만톤

	생 산			수 출		
	79 / 80	80 / 81	증가율(%)	79 / 80	80 / 81	증가율(%)
소 맥	58.30	63.28	8.5	37.42	39.46	5.5
옥수수	197.21	165.87	△15.9	60.96	63.50	4.2
대 두	61.73	49.53	△19.8	23.13	22.73	△ 1.7

쌀, 타곡물보다 수급변화가능성 높아 주요수출국과 장기협정 체결해야

세계곡물의 수급 팽박현상은 해마다 많은 양의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식량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식량 안보적인 차원에서 장·단기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경제연구원이 세계곡물수급 전망을 분석, 당국에 제시한 국내 식량수급 대책을 품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단기대책〉

△ 쌀=80/81년도중 쌀수급은 세계 전체로는 공급량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제쌀 시장은 소맥이나 옥수수등 다른 곡물 시장에 비해 그 규모가 작으며 총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도 불과 4% 내외로 소맥의 18%나 조곡의 12%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이러한 국제 쌀 시장의 협소로 쌀의 수입조건은 세계 전체의 수급전망과는 달리 수시로 악화될 가능성이 다른 곡물에 비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그 대책의 시기를 상실해서는 안될 것임.

△ 소맥=우리나라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풍작에 상으로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 가격면에서도 옥수수나 대두가격에 비해 상승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소맥수입은 다른 곡물에 비해 별 문제가 없을 것임.

△ 옥수수 및 대두=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고 있는 미국의 흉작에 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수급 팽박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도 금년 4/4분기 및 내년 상반기중에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주곡뿐만이 아니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들 사료 곡물에 대해서도 비축재고수준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조기 수입에 힘써야 할 것

또한 항시 세계 곡물정세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곡물전문가 및 전문가관을 양성해 나가야 할 것임.

〈중장기대책〉

① 정부차원에서 주요곡물수출국과 장기곡물협정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기해야 할 것임.

② 국내민간기업에도 국제곡물시장에 참여하도록 하여 이들 기업을 통한 민간베이스의 곡물공급과 비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③ 식량이 정치·외교적인 전략 수단으로 이용될수 있는 만큼 국내적으로는 주곡의 완전자급달성을 위한 기반을 계속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주요곡물 수입현황

(단위 : 천달러)

	쌀	소 맥	옥 수 수	대 두	합 계
1974	153,112 (364.7)	297,562 (1,312.8)	66,545 (438.6)	14,137 (49.5)	531,356 (2,165.6)
1975	195,118 (482.6)	293,651 (1,518.8)	87,104 (540.7)	14,770 (56.6)	590,643 (2,598.7)
1976	46,954 (179.6)	276,030 (1,744.2)	124,155 (943.6)	38,581 (147.9)	485,720 (3,015.3)
1977	14,205 (64.9)	273,227 (1,989.7)	151,613 (1,278.0)	43,018 (133.1)	482,063 (3,465.7)
1978	610 (1.9)	235,353 (1,638.3)	230,752 (1,877.9)	64,866 (237.6)	531,581 (3,755.7)
1979	69,367 (241.4)	299,077 (1,695.3)	364,594 (2,728.5)	135,450 (428.0)	868,488 (5,093.2)
1980	160,082 (496.4)	201,448 (1,022.0)	203,359 (1,308.4)	89,040 (301.1)	653,929 (3,127.9)
1 ~ 7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년보, 각호 관세청, 무역통계월보, 1980. 7

주 : () 안은 물량기준으로 단위는 천t임.